

# 배배 꼬인 일정... '12월 눈꽃 축구' 열릴 판

ACL 재개 전 파이널R 2경기 소화  
주중 경기 불가피... 3경기 탄력운영

한국팀 '12월 5일 결승전' 참가 땀  
자가격리 감안 빨라야 20일후 실천  
면제 없으면 공공 언 땅서 경기해야

어쩌면 하얀 눈이 덮인 그라운드에서  
형광색 공이 구르는 모습을 축구 팬들이  
볼 수 있을 것 같다. 화이트 크리스마스,  
아니 화이트 눈꽃 축구가 찾아올 가능성  
이 있어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의 세계적 확산으로 연기된 2020 아  
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AC  
L)가 10월 재개(동아시아 권역)를 공식

화하면서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올 시즌  
K리그1(1부) 잔여 스케줄을 변경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K리그1은 10월 4일 정규리그(22라운  
드)를 마치고 상위(1~6위)·하위(7~12  
위) 그룹으로 나뉜 팀당 5경기씩 치르는  
파이널 라운드에 돌입하려 했다. 10월과  
11월 열린 2022카타르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4경기를 감안해도 11월 중순까지 전  
일정을 끝낼 수 있다고 봤다.

그런데 AFC가 수원 삼성이 속한 G조  
와 전북 현대의 H조 잔여 경기를 말레이  
시아 조호르바루에서 10월 17일부터  
11월 1일까지 치르고, FC서울의 E조와  
울산 현대의 F조 경기는 10월 16일부터  
31일(이상 장소 미정)에 진행하기로 하  
면서 상황이 꼬였다.

연맹은 지난달 31일 K리그 구단 대표

자 회의를 열어 10월 초 파이널 라운드  
를 마무리하는 것과 ACL 재개 이전에  
파이널 라운드 2경기를 갖고, 이후 3경  
기를 하는 안을 검토했는데 표심이 10대  
2로 후자에 쏠렸다.

비 시즌이 길어지면 선수단 관리와 예  
산 운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협의가  
이미 끝난 경기장 대관 및 원정 숙소 예약  
등의 현실적인 문제를 들어 대부분이  
'10월 초 마무리'를 반대했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ACL이 조별리그로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 조별리그가 끝난 직후인  
11월 3~4일, 같은 지역에서 16강전을  
진행한다. 이어 8강전과 4강전을 각각  
11월 25일, 28일 치르기로 했고 결승전  
은 12월 5일로 잡았다.

K리그 팀들이 16강 이전에 탈락한다  
면 상황은 달라지지만 8강 이상의 성적

을 거둘 팀은 자칫 한 달 사이에 두 번의  
원정과 한 번의 2주 자가격리를 거쳐야  
한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발생한다.

ACL 결승전을 치르면 아무리 빨리  
귀국해도 12월 20일 이후에나 격리조치  
가 끝난다. 그렇다고 곧장 실전에 임할  
수 없는 노릇. ACL에 도전할 한 구단 관  
계자는 "클럽하우스에서 함께 숙식하고  
훈련도 할 수 없다. 최소 다섯 이상은 손  
발을 맞출 여유가 있어야 한다"고 푸념  
했다.

관계 당국의 '자가격리 면제' 특례가  
없으면 결국 크리스마스 축구가 불가피  
하고, 어쩌면 일본의 일왕배(FA컵)처럼  
새해 첫날 축구를 해야 할 수도 있다. 이  
래처럼 복잡하고 고민이 참 많은 2020시  
즌의 K리그다.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 '루틴 마니아' 정정용 감독 연습경기에서 길을 찾다

주중 연습경기→문제점 정비→주말 리그 경기  
대학강호들과 매주 실천... "선수들 적응했다"



정정용 감독

K리그2(2부) 서울 이랜드FC  
정정용 감독은 '루틴 마니아'로  
통한다. 긍정의 리더와 분위기  
연계를 크게 강조하는 편이다.  
과거 연령별 대표팀을 이끌 때  
부터 그랬다. 축구 훈련에 최적  
화된 목표에서 꿈을 만들고, 연  
중 내내 온화한 기후의 제주도  
에서 조식을 다지는 패턴을 꾸  
준히 유지했다.

지난해 11월 사령탑으로 부  
임한 서울 이랜드에서도 마찬가지다. 올해 초 태극 춘부  
리 전지훈련을 전후로 목포, 제주에서 훈련캠프를 열어  
2020시즌을 대비해 좋은 성과를 얻었다. 정 감독은 여기  
에 한 가지를 더 추가했다. 꾸준한 연습경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외부 접촉금지' 조치가 풀리자마자 서울 이랜드는 매주  
연습경기를 소화했다. 선수단 주간 훈련계획도 한결같  
다. 주말 리그 경기를 끝내면 회복훈련을 하고, 부분 전  
술을 다진 뒤 해당 주 수요일이나 목요일에 연습경기를  
한다. 여기서 드러난 문제점을 정비해 다시 주말 리그  
경기에 임하는 형태다. 하루 빨리 이동하는 원정 경기가  
잡혔을 때나 간간히 주어지는 휴식 일을 제외하면 주중  
실전은 낮선 풍경이 아니다.

곳은 날이나 좋은 날이나 한결같다. 혹서기에 유독 긴  
장마까지 겹쳤음에도 K리그1(1부) FC서울과 '3년 내 서  
울 더비'를 목표한 서울 이랜드는 중앙대·한양대·인천  
대 등 대학 강호들을 초청해 경기력을 높였다. 실천 위  
주의 훈련은 전북 현대가 선호하는 방식이다.

물론 대학 팀들에 지급할 초청료에 잠실올림픽주경  
기장 보조구장 대관료 등의 추가비용이 적잖이 들지만  
선수단의 전력과 조직력 강화를 위한 당연한 투자다. 서  
울 이랜드 홍보팀 관계자는 "(정정용) 감독님이 우리만  
의 고유한 루틴과 리듬을 주입하고 있다. 이전 많이 몸  
에 익은 모습"이라고 밝게 웃었다.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 K리그 선수단 전원 '코로나19 2차 전수검사'

한국프로축구연맹은 K리그 선수단 전원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  
다. 5월 시즌 개막을 앞두고 전수검사를 실시한 데 이은  
2차 전수검사다. 지난달 선수추가등록으로 각 팀 선수단  
에 변화가 있었다. 이에 연맹은 2차 전수검사를 실시해 모  
든 선수들이 안전한 상태에서 경기에 임할 수 있는 환경  
을 조성하기로 했다. 검사 대상자는 K리그1(1부)과 K리  
그2(2부) 코칭스태프, 선수, 지원스태프, 심판, 경기감독  
관 등 총 1139명이다. 각 구단은 지역 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실시해 14일까지 결과를 연맹에 제출해야 한다.  
1차 검사와 마찬가지로 모든 비용은 연맹이 부담한다.

편집 | 좌혜경 기자 hk7048@donga.com



챔피언십 PO결승 연장서 짜릿승... 풀럼, 2시즌만에 EPL 복귀  
'승격의 맛'은 엄청나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승격에 성공한 풀럼 주장 톰 케어니(가운데)가 5일 런던 웹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브렌트포드와 2019~2020시즌 챔피언십(2부) 플레이오프(PO) 결승에서 연장 접전 끝에 승리한 뒤 트로피를 들고 환호하고 있다. 리그 3위로 PO에 나선 풀럼은 5위 카디프시티를 누르고 맞이한 이날 경기에서 연장전에서 2골을 몰아쳐 2시즌 만에 최고의 무대로 되돌아갔다.

## 7골·4도움 강상우처럼... 인생역전 이끄는 '상무의 매력'

(울시즌 14경기)

### 스토리 사커

이정협·이상협·박기동·주민규 등  
상무서 나래 편 공격수들 수두룩  
탄탄한 팀워크·국내선수끼리 경쟁  
자기관리도 철저...역전 발판 충분

강상우(27·상주 상무)가 됐다. 확실하  
였다. 가광할 득점포로 축구인생 최고의  
한해를 보내고 있다.

강상우는 2014년 포항 스틸러스를 통해  
데뷔한 프로 7년차다. 그가 지난해까지 쌓  
은 공격 포인트는 13개(8골·5도움)다. 그  
런데 올 시즌 14경기 만에 7골·4도움을 올  
리며 6년간의 기록과 비슷해졌다. 7골은  
K리그1(1부) 국내 선수 최다 득점이다. 전  
체 순위도 4위다.

포지션을 바꾼 게 대박이었다. 그는 원  
래 측면 수비수였다. 지난해 1월 상무에 입  
대한 뒤 올 시즌을 앞두고 김태완 감독의  
권유로 공격수로 나섰다. 뜻하지 않은 포  
지션 변경은 잡자던 공격 본능을 깨웠다.  
14라운드 강원전에서 6경기 연속 공격 포  
인트(5골·2도움)를 기록하며 물론 감각  
을 증명해보였다. 이날 말 전역하는 강상  
우는 포항으로 돌아가 시즌을 이어간다.  
벌써 그의 포지션에 관심이 쏠린다. 포지



강상우

대전) 등이 대표적이다.

'상무'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 중  
하나가 이정협이다. 원 소속팀 부산에서  
주목 받지 못했던 그에게 상무 입단은 터  
닝 포인트였다. 울리 슈탈리케 당시 국가  
대표팀 감독의 눈에 들어 2015년 호주아시  
안컵을 통해 생애 첫 태극 유니폼을 입었  
다. K리그에서도 2014시즌 4골에 이어  
2015시즌 7골·6도움으로 필렐 날았다. 그  
는 상무에 대해 "삶에 많은 도움을 준 시  
간"이라고 했다.

"미친 원발" 이상협은 늘 '유망주'라는  
수식어를 단 채 이적과 임대를 전전하며  
자신감을 잃어가던 즈음, 2012년 여름 상  
무에 입단하면서 축구인생이 풀렸다. 특기  
인 원발은 물론이고 오른발도 제대로 쓰면  
서 2013시즌 최고의 시즌(15골·3도움)을  
보냈다.  
2016시즌 9골·8도움으로 상무가 창단

선이 어땠던 그는  
올해 최고의 히트  
상품 중 하나다.

강상우처럼 군  
대에서 존재감을  
키운 케이스가 제  
법 된다. 이정협

(29·부산), 이상협  
(34), 박기동(32·  
경남), 주민규(30·  
제주), 박용지(28·

첫 상위 스플릿에 오르는데 결정적인 역할  
을 한 박기동이나 2017시즌 17골로 커리  
어하이클 찍으며 1부에서도 통할 수 있다  
는 걸 보여준 주민규, 2019시즌 상무의 예  
이스로 우뚝 선 박용지 등은 상무와 뗄 수  
없는 선수들이다.

이렇듯 상무는 군 복무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특히 누군가에게 역전의 발판이었  
다. 이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 가운  
데 군 팀이라는 특수한 환경에 주목할 필  
요가 있다.

위에 언급된 선수들은 모두 공격수들이  
다. 군 팀엔 외국인 선수가 없다. 국내 선  
수끼리 경쟁한다. 원 소속팀에서 빛을 보  
지 못한 선수도 다시 한번 도전해볼 수 있  
는 곳이 바로 상무다.

포래가 한 팀을 구성하는 것도 독특하  
다. 한창 뿔 나이인 20대 중반이 한 팀을  
이루면서 팀워크가 단단해지는 것도 강점  
이다. 승강제는 또 다른 동기부여다. "2부  
강등은 자존심 문제"라며 쉽게 의기투합  
한다. 또 원 소속팀에 복귀했을 때 환영받  
기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뛰는 편이다.

상주 상무의 창단부터 함께 해온 강지웅  
경영지원팀장은 "군인 신분으로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자기관리가 철저하다. 선수들  
은 '대충 뛰는' 소리를 듣기 위해 최  
선을 다한다. 선수들이 뒤늦게 꽃을 피울  
수 있는 요인은 다양하다"고 진단했다.  
최현길 기자 choihg2@donga.com



이임생 감독

## 이임생 전 수원감독 인천 지휘봉 잡는다

"최종 결정만 남았다"...사실상 확정  
강등 위기 인천 반전 이뤄질지 관심

이임생 전 수원 삼성 감독(49)이 인천 유  
나이티드의 지휘봉을 잡는다.

인천 관계자는 5일 "이 감독 선임을 내  
부적으로 검토했고, 구단주와의 미팅을 통  
해 최종 결정된다"고 밝혔다. 최종 사인만  
남았다는 의미다.

인천은 '하나원큐 K리그1 2020' 14경기  
에서 5무9패(승점 5)로 최하위에 머물러  
있다. 14경기를 치르는 동안 1승도 거두지  
못했다. K리그1(1부) 12팀 중 유일하게 승  
리가 없다. 이 과정에서 6월 임완섭 감독이  
자리에서 물러나고 임중용 수석코치가 감  
독대행을 맡아 팀을 이끌어왔다. 11위 FC  
서울(4승1무9패·승점 13)과도 격차가 적  
지 않아 극적인 반전을 이뤄내지 못하면 K  
리그2(2부) 강등을 면하기 어려운 처지다.

임완섭 감독이 물러난 이후 인천은 꾸준  
히 새 사령탑을 모색했지만 좀처럼 적임자  
를 찾지 못했다. 지난해를 끝으로 건강상  
의 이유로 자리에서 물러난 유상철 명예  
감독을 재차 불러들여 했지만 논란만 가  
중됐다. 인천은 결국 입장을 철회했다. 이  
후 한 달이 넘도록 대행 체제가 이어졌다.

인천은 임중용 대행 체제에서 경기력이  
나아졌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승리라는 결  
과물은 얻지 못했다. 대행 체제로 치른 5경  
기에서 3무2패에 그쳤다. 현재 체제를 계속 유  
지할 순 없었다. 아시아축구연맹(AFC) 규  
정상 P급 라이선스가 없는 임 대행이 사령  
탑을 맡을 수 있는 기간은 최대 60일뿐이다.

인천은 지난달 17일 이 감독이 수원에서  
성적부진을 이유로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접촉에 나섰다. 인천 구단 관계자는 "이 감  
독이 수원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  
문에 팀에서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다. 구단 내부에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직원이 얼마 되지 않을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단주와의 미팅이 남았  
다. 아직 사인을 하진 않았지만 현재로서는  
선임될 가능성이 높다"고 털어놓았다.

인천은 이 감독과의 계약을 마무리 짓  
고, 팀을 정비해 9일 성남FC와의 홈경기  
를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